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52호>
2004년 5월 27일(목)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http://www.ihufsan.com

창간 196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김종덕 편집장 김용훈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대학당국, 교직원에게 50만원씩 지급

편입학 전형료 추가수입 4억 중 3억5천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서울총학, 총장사과 상여금 반납 요구
기조처장 "정책적 판단으로 지급한 것"

대학당국이 지난 2월 교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의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것은 서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처음으로 제기해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상여금은 편입학 전형료 수입 예상액보다 4억정도가 더 늘면서 비롯된 것으로 대학당국은 이 금액 중 3억 5천만원을 50만원씩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런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총학생회장 김제동(사범·영어교육 99)군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등록금 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동결을 주장할 때마다 "학교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던 학교가 추가수익금이 발생했음에도 그걸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면서 "지급할 계획도 없었던 예상 외의 수입이 생겼다고 준다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외대발전추진위원회장 이세영(영어·영어 97)군은 "재방에 컴퓨터 놓아주는 일도 이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 해 줄 수 없다는 게 학교였다"면서 "추가 수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기획조정처장 김인철교수(행정학과)는 "마치 교직원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데 그게 결코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면서 "결정은 기조처장의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2월이면 1년을 결산하는 달인데다가 편입생 지원자가 많아 수입이 더 늘어나서 그만큼 더 고생한 교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준 것이다"면서 "이러한 상여금은 교직원들 사기 충전이나 동기부여,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제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학교 구성원이 교수, 직원, 학생이듯 교수, 직원을 위해 사용된 것이 그래도 학생들의 손해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의 입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3억 5천여만원은 반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수) 대학당국에 다섯 가지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급된 돈의 반납을 포함해 총 결정자인 총장의 사과, 부당한 등록금의 환불,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오는 25일(화)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관에 있는 사무실을 하루에 하나씩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조처장 김 교수는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특별 상여금의 반납에 대해서 "환불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 앞으로 이번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곽은정 기자
ej2045@hanmail.net



아듀!! 학생회관!!

낡아버린 옛 학생회관 건물과 그 터에 세워질 기숙사 조감도의 모습.
1964년부터 2004년까지… 40년의 세월을 한 자리에 서서 우리들과 함께 했던 옛 학생회관아 이제 우리는 너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우리 선배들이 함께 했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너와의 추억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굿바이, 학생회관!

곽은정 기자

정원조정안 교수회의서 논의

학과·자유전공 신설이 골자…법대 50명 증원도 포함
불·독·서어과 교수들, 위원회안 반대 입장 밝혀

서울배움터 법학과 50명 증원을 포함한 '학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학제개편안이 오는 24, 25일(화) 열리는 교수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공식 논의된다. 조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정원조정안(정원조정안)에 따르면 △서울배움터에 국제학부와 중국어교육과·일본어교육과와 용인배움터에 국제문화관광학부 신설 △법대 50명 증원 △캠퍼스·단과대별 자유전공제가 신설된다. 조정위원회는 이 학제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실현방법에 따라 4가지 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학과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배움터 서양어대와 용인배움터 서유럽학대 불어과, 독일어과, 서반아어과와 서울배움터 사범대 불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교수들은 지난 24일(월) 학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제시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글에서 위원회안의 절차상·내용상의 문제점을 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정원조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일정과 관련 서울배움터 홍승현 기획조정과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취합해 조정위원회가 최종안을 손질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수회의는 배움터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24일 오후 5시 20분에는 용인배움터 우덕홀에서 25일 오후 5시에는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열린다.

모의유엔총회 오는 28일(금)

서울배움터 모의국제연합이 주최하는 28차 모의유엔총회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제관 애경홀에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이라는 의제로 열린다. 모의유엔총회는 1959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초의 외국어 학술행사로 국내 대학의 학생과 교수 뿐만 아니라 각 국의 대사들이 참석하고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UN한국협회, UNESCO한국위원회, 여러 대사관 등에서 후원을 받는 행사이다. 이번 의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남아공, 독일, 멕시코, 미국, 영국, 이란, 중국, 태국, 프랑스, 필리핀, 한국, 호주 등 12개국의 대표위원들이 나와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어와 유엔 공식 6개 언어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동시통역된다.

준비위원장 이재원(사회·정치외교 03)군은 "준비기간이 짧아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학술제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우리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국제번역통역대학협회 가입

우리학교의 통역번역대학원이 국제번역통역대학원(교)협회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통역번역대학원은 국제번역통역대학원(교)협회(CUTI)의 정규 회원에 가입되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23일(일) 밝혔다.

우리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이 협회 가입은 동양권 최초이며 이미 가입된 레바논을 제외하면 북미, 유럽이외 대학으로도 처음으로 의미가 대단히 크다. 국제번역통역대학원(교)협회는 전세계 통역번역대학원 중 미국 1개교, 캐나다 1개교, 유럽 22개교 등 12개국 25개교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까다로운 실사와 승인절차 때문에 협회의 가입만으로도 대학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검증 받을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협회이다. 협회 가입을 위해 우리학교는 지난해 협회로부터 대학원의 시설, 교육내용, 교수진, 교수업적, 출판 등 대학원내의 모든 상황에 대해 실사를 받았다.

조재영 통역번역대학원 원장은 "협회 가입을 통해 향후 세계적 통역번역대학원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교수·학생교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이 세계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 되다

실무교섭 후 학교당국과 노조 합의 이뤄내

오는 2009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년과 한시적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원을 제외한 43명의 비정규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관계기사 3면

이것은 지난 3월부터 진행돼온 단체협약이 7차에서 결렬된 후 실무교섭에서 학교와 노조가 합의를 이뤄낸 결과이다.

실무교섭 위원 용인배움터 총무처장 조기성교수(생명공학)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로서는 큰 부담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수순을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지부장 이정철씨는 "정규직화를 이뤄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함께 힘을 실어준 정규직원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상의 원칙 때문에 논술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대학측의 입장과 비정규직원의 경력 인정 부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했던 점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정규직화 합의에 대해 정규직원이 될 비정규직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3년차 비정규직이라는 한 직원은 "기쁘지만 단계적 정규직화라서 될 때까지 적은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고 경력인정 방식 때문에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번 우리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이정교수(법대)는 "노조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학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갔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곽은정 기자
ej2045@hanmail.net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열린다

오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3일동안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이 경희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대학 총학생회와 8개의 학생단체는 지난 4일(화) 한마당 조직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의 지위를 방철히 해부하고 한국 사회 대안세력으로 재도약하는 대학의 가치 복원을 위해 3백만 대학생의 교류와 소통, 단결과 연대를 위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5월 한마당 취지를 밝혔다.

28일 첫 행사인 참여마당에는 춤한마당 '발광 스테이지', '한국대학생 가요제', '풍물한마당', '북녘 용천동포 돕기를 위한 바지회', '청년실업 기금 마련을 위한 벼룩시장', '세계 대학생 푸드 페스티발' 등이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토론회 '스무살 한국 사회를 말한다'를 비롯해 주제가 있는 영화제, 강연회 등 학술제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사회대학 소모임들과 서양어대와 동양어대 학생들이 월드빌리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의평가 오는 27일부터 실시

서울배움터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가 오는 27일(목)부터 6월 4일(금)까지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평가는 외발추가 자체 모집한 평가요원들이 강의실에 직접 방문, 학생들의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 대상강의의 교수들은 수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강의평가는 교양과목위주로 강의를 선정해 평가하며 강의결과는 2학기 수강신청전에 과방과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한국외국어대학 학생들에게

평양외국어대 학생위원회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온 겨레의 통일 대전문이 보다 공고되어 있는 시기에 대학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귀 대학교 학우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15 시대에 대학 창립 50주년을 맞는 학우들의 가슴 가슴마다에는 우리시대의 기어이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고 통일조국에서 배움의 아름을 더 활짝 펼치려는 결의가 불타고 있으리라 봅니다.

⋮

청춘은 꿈이 있어 아름답고 내일이 있어 귀중하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과 가림이 있어 용맹한것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도 달려있습니다.

⋮

우리 모두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투쟁에서 서로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나갑시다.

– 평양외국어대에서 온 편지 中

평양외대에서 온 축전

빈의자

대학당국, 등록금의존율 70% 낮출 생각부터

▲안병만 총장은 지난 4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아무인 즉, 대학당국이 학생을 속인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만'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대학당국은 안총장의 승인 하에 지난 2월, 편입학 전형료 수입에서 생긴 추가수입 4억원 중 약 3억 5천만원을 교직원들에게 50만원씩 나눠줬다. 더욱 기막힌 것은 등록금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인철 기조처장은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정책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정책 한번 신통하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조차 없어서 학생등록금의 7.3%(17만원~20만원)나 인상해야 하는 학교가 715명의 교직원들에게 50만원씩은 쉽게 나눠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신통한 정책인가?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이른다. 추가수익금이 생겼다면 당연히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데 사용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다.

▲지난 4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하고 단식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대학당국이었다. 그런 대학당국이 학생들이야 삭발을 하건 단식을 하건 3억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교직원들에 나눠줬다. 이런 마당에 학생들에게 대학당국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대학당국은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번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장 먼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안병만 총장이다. 안총장은 지금껏 학생들의 부담은 알지만 예산이 부족해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학생들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총장이 3억 5천만원을 쉽게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일에 대해 총장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편집장

사설

개인의 양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며

며칠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3인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월)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의 신봉자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논란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병역거부 반대 카페의 어느 네티즌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적이면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는 비양심적이라는 것이냐?"와 같은 식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는 자들의 논리는 다소 감정적으로 들린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중앙일보에서 거론했던 바와 같이 특정 종교 신봉자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의 신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누군가를 살해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자신의 양심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은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서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론자들은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을 핑계로 특혜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는 피해의식의 발로가 되서는 곤란하다. 일차적인 잘못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씌우는 국가에게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단순히 양심을 핑계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는 대신 다른 역할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대체복무제이다. 대체복무제는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세계 30여개의 나라에서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신념을 꺾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손에 총을 들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버리지 않는 국민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개인의 다양한 신념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이 국가라 할지라도 짓밟을 권리는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더욱 더 존중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모병제로의 전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외·대·만·평 <27>



허 진

용인대동제, 참신한 기획 돋보여

'장승제' 논란 해결 안돼

용인배움터 대동제가 지난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4일 동안 용인배움터 곳곳에서 진행됐다. '깨자! 웃자! 놀자!'라는 기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월) 용인배움터 도서관에서부터 후복관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각 과를 상징하는 형상을 그리는 '왕산로 드만들기' 행사로 시작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겹치기도 했던 이번 대동제에서는 5·18 문화제를 통해 광주의 넋을 기리는 장도 마련됐다. 또한, 기존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같은 형식의 '왕산 골든벨'이 진행됐다.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왕산 골든벨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3제주항쟁, 이라크 파병문제, FTA 등'의 소재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학과인 아랍어과 과회장 하대양(02)군은 이날 행사에 대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19일(수)에는 20회 FBS 가요제가 대동제 기간동안 열렸다. 특히 올해는 FBS 가요제 시작 전 외사랑 가요제가 함께 진행돼 학생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해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 서유럽대 학생회장 어중선(영어 98)군은 "평소에 함께 생활하는 수위아저씨들이 매년 축제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번 외사랑 가요제를 통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챙겼다고 생각한다"며 행사에 대해 호평했다.

축제 마지막 날이었던 20일(목)에는 락페스티벌이 진행됐으며 이날 불독맨션, 이적 등 유명가수들이 초청돼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는 에년과 같이 명수단에서 진행된 번지점프와 봇돌이가 진행됐으며 예년과는 달리 디카사진 공모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4일 동안 치러진 이번 행사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새내기 한영지(동유럽·유고어 04)양은 "대학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망스러웠다"며 다른 대학들에 비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노미진(아시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 04)양은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 오후나절에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며 축제기간동안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마지막 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승제에 대한 학내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대기독교동아리연합회(외기연)은 장승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대자보를 통해 드러냈으며 장승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 최익기(경상대·무역 99)군은 "캠퍼스라는 공간은 외대인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공간이다. 장승제는 오가는 기독 학생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대동제 기획을 맡았던 김경수(서유럽·영어 98)군은 "장승제를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전통문화라고 생각해왔으면 좋겠다"며 외기연 측의 이해를 부탁했다. 장승은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유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대동제를 기획한 세민전준비위원장 김경수(서유럽·영어 98)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앙행사들은 성공적이었지만 과단대 행사들이 주점 중심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이번 대동제를 평가했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서울, 등투 계속하기로

지난 11일 확운위에서 결정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화) 열린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 참석한 과 학생회장 이상의 대표자들은 대학당국의 4억원 상당의 장학금 제안을 거부하고 등록금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양어대 학생회장 정순영(서반아어 00)양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학당국의 4억원 제안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대학당국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학당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4억원 제안으로) 학생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며 등록금 투쟁을 계속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배움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외대어학원 문제도 논의 됐다. 부총학생회장 김제동(사범·영어교육 99)군에 따르면 외대어학원 문제에 대해 재단이사회 차원의 '외대어학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월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도서관 학생위원회와 모의유엔총회의 예결산안과 사업계획이 통과 인준됐다.

대학부
oedaepress@hanmail.net



장합니다!!

우리학교 알룽캉 원정대가 지난 19일(수) 서울배움터 미네르바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위는 해단식에서 알룽캉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안병만총장에게 기념으로 건네는 엄홍길 대장의 모습.

대학부

13일, 용인국제학술회 열려

개교 50주년과 역사문화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3일(목) 용인배움터 외국학종합연구센터(외종연) 연구동 우덕홀에서 진행됐다. '전쟁과 해외 한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재외한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중국항일혁명전쟁, 국공내전 등 주요한 전쟁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인과 전쟁 △조선족과 전쟁 △재미한인과 전쟁 등 3개의 분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분과당 2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최를 맡은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영학교수(사학)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민족의 고난의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의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이번 학술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알룽캉 원정대 지난 19일 해단식

지난 17일(월) 귀국한 우리학교 산악부 알룽캉 원정대(대장 조동식)가 19일(수)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달 5일 엄홍길(동양·중국어 02)등반대장의 세계 최초 히말라야 15좌 완등으로 이 자리는 더욱 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원정대는 지난 3월 28일 등반을 시작해 지난 달 28일 1차 정상 정복에 도전했으나 악천후로 인해 실패했다. 하지만 엄대장과 셀파 2명이 다시 도전해 지난 5일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떠난 지 12시간여만에 정상에 우뚝 섬으로써 이번 알룽캉 원정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번 원정에 참가한 산악부원 김윤뢰(동양·아랍어 02)군은 "정상까지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24일)	북어국밥 (₩1,500)	산채비빔밥 (₩1,400)	오무라이스 (₩1,500)	얼갈이곰탕 (₩1,500)	카레돈까스덮밥 (₩1,600)	냉면 (₩1,000)
화 (25일)	두부조림백반 (₩1,0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미네르바정식 (₩1,800)	참치김치찌개 (₩1,400)	설렁탕 (₩1,500)	메밀국수 (₩1,200)
수 (26일)	석가탄신일					
목 (27일)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숙회비빔밥 (₩1,400)	김치볶음정식 (₩1,500)	닭개장 (₩1,400)	돈육볶음덮밥 (₩1,400)	쟁반국수 (₩1,200)
금 (28일)	코다리찜백반 (₩1,000)	낙지쭈꾸미덮밥 (₩1,600)	햄버스텍 (₩2,000)	소고기국밥 (₩1,500)	양송이볶음밥/짜장소스 (₩1,400)	쫄면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한식	정식	분식	정식	일품	양식
월 (24일)	사리곰탕 (₩1,800)	돈가스 (₩2,000)	우동 (₩1,300)	굥치열무조림 (₩1,500)	설렁탕 (₩1,800)	돈가스 (₩2,000)
화 (25일)	김치볶음밥/계란후라이 (₩1,800)	해물스파게티 (₩2,000)	라면 (₩1,200)	아기볼어묵조림 (₩1,500)	햄야채볶음밥 (₩1,800)	함박스테이크 (₩2,000)
수 (26일)	석가탄신일					
목 (27일)	참치비빔밥 (₩1,800)	탕수육정식 (₩2,000)	자장면 (₩1,300)	미니돈가스케찹조림 (₩1,500)	오징어덮밥 (₩1,800)	오므라이스 (₩2,000)
금 (28일)	햄야채볶음밥 (₩1,500)	치킨가스 (₩2,000)	어묵우동 (₩1,500)	호박고추장찌개 (₩1,500)	생야채비빔밥 (₩1,800)	스파게티 (₩2,000)

2004 FBS 외대방송국 정규방송 편성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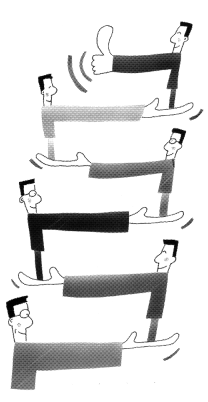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아침방송 (8:30 ~8:50)	아침의 산책 / Campus Network				
저녁방송 (5:00 ~ 5:30)	라디오 책방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호르는 선율위에	기자초대석 / 바른 말 고운 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용인>

	월	화	수	목	금
아침	아침의 산책	음악이 있는 아침	아침의 산책	음악이 있는 아침	아침의 산책
점심	음악방송				
아침	기자생활 엿보기	클릭! 인터넷세상	Music in musical	경영방련 네트워크	FBS 드라마

"나도 결정권이 있소?"

네, 그렇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발언하십시오.
"나도 의견 있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외대발전을 위한 탁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며 상설운영기구입니다. 중운위는 총(부)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특별기구 중 기본기구장으로 구성됩니다.
중운위는 회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하며, 학생회비, 총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특별기구의 인준 및 예산, 특별기구의 심사와 해소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확대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는 전학대회 다음의 정례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확운위는 총(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언론협의회장, 총학생회부 3인, 과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대표, 법대 간선단부 1인으로 구성됩니다. 당해연도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확운위는 과회장님들까지 참석하여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중운위와 전학대회의 사이에 있는 기구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중적인 결의의 측면을 함께 할 수 있는 회의체계입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전학대회는 외대의 모든 대표자 전원, 즉 총(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언론협의회장, 총학생회부 3인, 과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 대표, 각과 학대대표, 각 단대 간선단부 2인(법대는 3인), 동아리연합회 분과당 2인, 4개 언론사 대표, 특별기구 중 기본기구 집행부 1인, 통틀 - 노래 조직 대표로 구성됩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칙을 제정, 개정, 삭제하는 일,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학대운위에서 상정한 학생회비의 책정, 총학생회의 사업과 예결산에 대한 승인, 집행국의 임명 인준 및 해임요구, 특별기구의 인준, 심사 및 해소 등의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생총회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학생총회는 외대의 모든 회원(학생)으로 구성되며, 총학생회장이 학생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게 됩니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입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그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게 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기숙사 방배정 관련 공청회 열려

남사 1층 여학생 60명, 갈곳은?

오늘 24일(월)로 다가온 용인배움터 기숙사 2학기 방배정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목) 용인배움터 기숙사 모현학사 식당에서 2학기 기숙사 방배정 문제에 관한 총학생회와 사생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기숙사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과 눈앞에 직면한 다음 학기 방배정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지난 3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여학생 60명을 남학생 기숙사 1층에 방을 배정한 문제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학종합연구센터(외종연) 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생회는 외종연 이전 방안에 대해서 △사생관리 불가능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의 안에 대해서 거부해 왔다. 또한, 최근 2학기 방배정 문제를 앞두고 사생회 측은 투표를 통해 남사 1층 여학생 60명 거주안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투표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와관련, 여사생장 조세욱(아시아아프리카·마인어 01)양은 "투표대상이 남학생들까지 미친다면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원상복귀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다음 학기 방배정 문제에 관련,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양측의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뚜렷한 성과점을 남기지 못했다. 총학생회 측 패널로 참가한 부총학생회장 위현석(서유럽·서어 98)군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남사 1층에 여학생 60명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원상복귀 역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은 남사 1층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다른 학내 공간에 늘어난 60명의 여학생들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생회 측의 투표결정론에 대해 "다음 학기 방배정과 관련해서는 사생들만의 투표로는 부족하다. 사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사생장 김재희(서유럽·영어 01)군은 "2학기 사생원서를 통해 현재 60명의 여학생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군은 방배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상태(여학생 60명 남사 1층 거주안) 보수유지 △원상복귀 △남녀기숙사 교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사생장 조 양은 남녀기숙사 교체 방안에 대해 "기구교체비만 7억이라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는 제 2기숙사 증축 이후에는 2인 1실 형태로 다시 리모델링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위현석 부총학생회장은 "중요한 것은 7억이 아닌 사생들의 생활권"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방청하던 이신혁(아시아아프리카·중국어 02)군은 "남사 1층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학생들만 1층에 배정하는 방법이나 한쪽 통로를 폐쇄하여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색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 위는 지난 20일(목) 기숙사 식당에서 진행된 공청회 장면이다.



나, 예뻐?

서울배움터 곳곳에서 졸업앨범촬영이 한창이다. 위 사진은 서울배움터 독일어과 예비졸업생들이 아외촬영을 하는 모습. 올해 처음으로 우리학교 촬영을 맡은 맥스류디오 대표 정금근(36)씨는 "피곤하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도 "졸학생들이 많은 탓인지 촬영자들이 계속 줄고있다"고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박수용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된다

정규직 되는 반면 경력인정은 거의 안돼

우리학교 비정규직원이 올해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 그 대상으로는 정년예정자와 한시적 임시직을 제외한 43명의 비정규직원들이다.

기본적으로 매년 5명을 정규직화하며 신입직원 채용시에는 그 수와 같은 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 비정규직원 중 2009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되지 않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2010년이 되기 전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정규직원이 되면 비정규직원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어 올해부터 책정된 호봉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계적인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이전의 비정규직원들은 동일한 호봉의 정규직 임금의 60%, 내년부터는 70%를 받음으로 그 기간을 보상받게 된다.

비정규직원의 호봉산출 방식은 간단하다. 근속년수에서 3을 빼고 그 수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지만 이 산출 방식은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7년을 근무한 비정규직원의 경우는 2년의 경력만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곽은정 기자
ej2045@hanmail.net

올해 임금·단체협약 마무리

지난 11일(화)로 2004년도 임금·단체협약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임금·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중요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 때문에 한켠으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타결됨에 따라 임금협약과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번 임금협약은 정률 5%와 정액 10만원의 인상으로 정해졌다. 노조 지부장 이정철씨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제안한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임금협약에 신경 쓰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금 인상폭이 학교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부담한 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씨는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으로는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함해 △육아휴직급여 인상△호봉제도 개선△일·숙직 제도 폐지△학자금 지급△직원 해외 연수 비용 지급 등이 있다.

곽은정 기자

학내단신

법대 학생회, 24일부터 장학생 모집

법대 학생회가 지난 24일(월)부터 오는28일(금)까지 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대동제 수익금 전액과 법대 교수들의 후원금으로 법대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장학생은 가정형편과 학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학과장과 학생회 간부를 통해 선발한다. 총 2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하며 장학생 발표는 이달 말에 한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 법대 학생회장 박종원(법·법학 99)군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AV영화제, 24·25일

상경대 문예패의 '제11회 어너더뷰(AV) 필름 페스티발'이 오는 24·25일(화) 오후 3시부터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총 12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될 이번 영화제는 박찬욱, 임순례 등 21세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영화감독들의 초기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문예패장 김혜영(상경·경영 03)양은 "이번 영화제가 학생들에게 영화 속 사회의 식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정보공학과 용인 농구대회서 우승

용인배움터 부총장배 농구대회에서 디지털정보공학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디지털정보공학과는 지난 21일(금) 열린 결승전에서 산업공학과를 44대 36으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날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준 우승팀 에게는 상금 20만원이 각각 전해졌다. 중앙 농구동아리 피버스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17일간 21개팀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피버스 회장이자 우승팀의 주전선수로 활약한 이우주 (정보산업공·디지털정보공학 99)군은 "동아리 신입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비정규직을 위한 서유럽대 주점 열려

'비정규직을 위한 서유럽대 주점'이 지난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그리스·발칸어과와 영어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서유럽대 학생회는 이번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앞으로 열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유럽대 학생회장 어중선(서유럽·영어 98)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전국생활도서관 서평대회 31일 마감

전국생활자치도서관협의회가 주최하는 2004 생활자치도서관 서평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현대자본주의 △여성 △근현대사 △정치경제학 비판 △정치철학 △문학 △인권 △환경·자연과학 카테고리에 선정된 도서를 읽고 200자 원고지 20~25매 내외로 서평을 쓰면 된다. 응모는 오는 31일(월)까지 우리학교 생활도서관에서 하면 되며 최우수작 1편, 우수작 8편 등을 선정한다.

수상자 발표는 6월 6월부터 13일 사이에 하며 자세한 문의는 생활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 FBS가요제 열려

용인배움터 FBS가요제가 지난 19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외대인가요제가 사전행사로 열렸다. 이 가요제에서는 기숙사 매점에서 근무하는 박미영씨가 '갈등'이란 곡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시작된 본 행사는 총6팀이 실력을 겨뤘다. 우리학교 김학철(서유럽·영어 04)군과 가블리대 안준석(경영학부 04)군이 팀을 이뤄 FBS가요제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TOY의 객원보컬이었던 김연우와 리쌍의 전 맴버 정인이 초대가수로 나와 현장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총연출자인 용인FBS명예국원 방윤식(인문·철학 99)군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어과, '제종철 선배 후원 주점' 열어

용인 배움터 폴란드어과는 대동제 기간인 지난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고 제종철(동유럽·폴란드어 87 졸)선배를 위한 후원' 주점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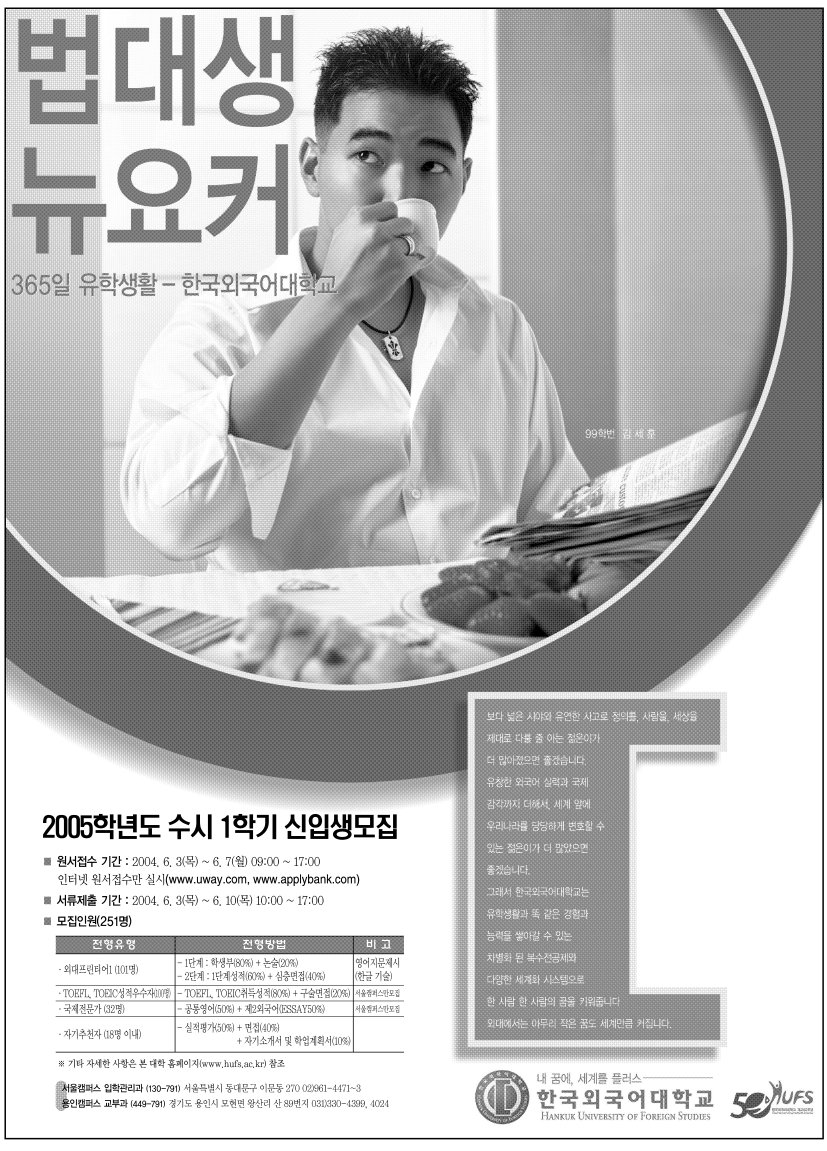
고 제종철 동문은 여중생범대위 상황실 부실장으로 '효선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집회'를 주도 하였으나, 작년 12월 의정부역 철길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후원주점의 수입금 전액은 '제종철 후원 사업회'에 기부한다.

폴란드어과 학생회장 최성우(동유럽·폴란드어 99)군은 "이번 주점을 계기로 제종철 선배를 완산의 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폴란드어과와 학생회는 이후 모금함을 만들어 지속적인 후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법대 전공과목 평가제 연기

지난 17일(월)부터 21일(금)로 예정되었던 법대 전공과목 평가제가 오는 31일(월)부터 다음달 4일(금)로 연기됐다.

이것은 법대교수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현재와 미래

민주노동당답게 소신있는 정책으로

소신있는 정책 반영 위해 정치적 힘 키우는 노력 수반돼야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14일(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21.9%로 정당 지지율 2위인 한나라당(22.3%)과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번 4·15총선을 통해 10석을 당선시킨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금껏 재야에서 활동해온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석원(사회·정치외교 00)군은 "그동안의 정당과는 달리 정책에 있어서 앞뒤 재지 않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민노당 지지율 급상승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다. 민주노동당 원내진출과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진보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노당이 국민들 속에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난 것"이라며 그 의미를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얻은 국회의원 수는 10명이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어 국회에서 정책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299석 가운데 원내교섭단체에는 못 미치는 1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 발휘가 힘들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개인의 정치 수완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대변인은 "진보정당이 첫 원내진출을 한 만큼 원내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과거와 같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요구하는 방법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무엇일까?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 진출이기도 하지만 국내 최초의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크다.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는 박태석(인문·사학 03)군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우리 역사의 커다란 성과점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라크 파병철회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서 민노당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 역시 "당장은 이라크 파병철회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자주적 외교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한 고민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치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학교 남궁연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선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내에 들어온 것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100% 민노당의 가치에 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정당과 비교했을때 두드러지는 민주노동당의 정직성과 반부패성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수"라며 민노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분석했다. 남궁연 교수는 이와 동시에 민주노동당의 역할 역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지지분한 정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도 공헌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남궁 교수는 "깨끗한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현실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에게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진출 성공과 지지율 급상승의 가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답게"라는 말로 그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기대감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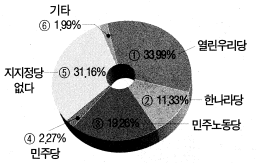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민주노동당 관련 외대인 설문조사

민주노동당에 대한 호감도 5.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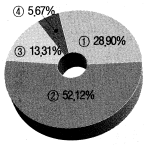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① 열린우리당 (120명) - 33.99%
② 한나라당 (40명) - 11.33%
③ 민주노동당 (68명) - 19.26%
④ 민주당 (8명) - 2.27%
⑤ 지지정당없다 (110명) - 31.16%
⑥ 기타 (7명) - 1.99%

이번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견제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102명) - 28.90%
②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184명) - 52.12%
③ 언론개혁법 등 각종 개혁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47명) - 13.31%
④ 기타 (20명) - 5.67%

탄핵정국 속에서 진행된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확보',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이라는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 총선 이후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10으로 당당히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외대학보에서는 우리대학 학생 353명(용인: 155명, 서울: 198명)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개별방문을 통해 진행됐다.

편집자

이번 설문에 응한 응답자 353명 중 각각 35.7%(126명)와 32%(113명) 가 이번 총선의 중요한 결과로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성공'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1위 열린우리당(120명 34%)에 이어 2위로 민주노동당(68명 19.3%)을 선택했다.

이는 총선을 전후해 전 사회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학교 학생들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현재 지지도 2위에 올라선 민주노동당의 인기를 반영하듯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나라당 11.3%에 비해 무려 8%나 높은 19.3%로 2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 정당이 없다'가 31.2%로 나와 학우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호감도는 10점을 기준으로 5.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중 민주노동당 당원은 2.3%에 그쳤으며 이후 민주노동당 가입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345명의 학우 중 85%가 가입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에 대한 호감도와 당 정치활동 참여 여부는 분리됨을 알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52.1%)가 1위로 꼽혔으며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견제'(28.9%)와 '각 종 개혁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13.3%)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7.5%가 '청년실업 문제'를 꼽았다.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0.4%)',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법개정(9.1%)'을 선택했다.

주제기획팀

진보정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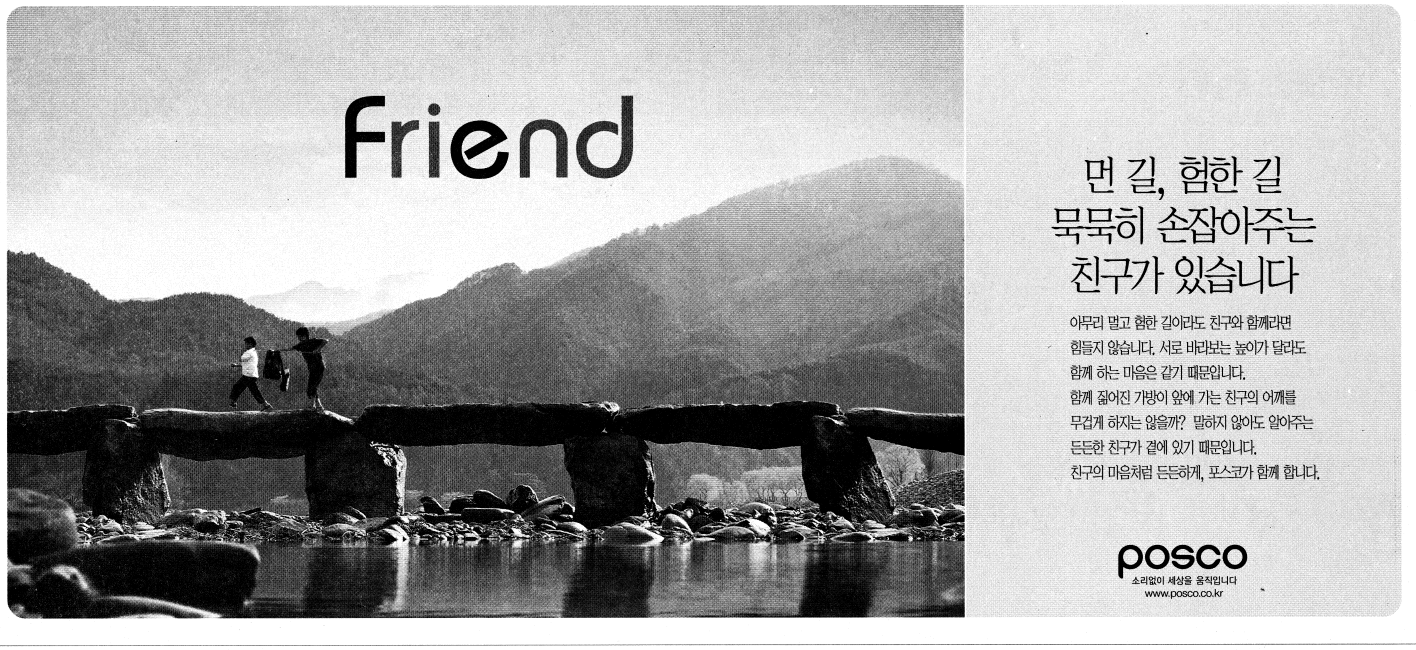
반세기동안 창당·소멸 거듭하다 17대 원내진출로 결실맺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이뤄냈다. 이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이후 4년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더욱이 진보정당이 원내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2, 3위를 다툴 정도가 된 적은 진보정당의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창당과 해산을 거듭했지만 그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진보정당은 조봉암의 '진보당'이었다. 지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봉암은 선거 이후 진보당을 창당하지만 이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를 위협할 만큼의 득표율을 얻자 이승만 정권은 58년 조봉암을 간첩단 사건에 연류시켜 사형에 처했고 진보당은 해체되게 된다.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은 4·19혁명이후 열린 1960년 7·29 총선으로 이뤄졌다. 이 총선에서 진보적 통일론을 내건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등에서 7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강제해산돼 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뒤 진보정당은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에서 이렇다 할 활동을 남기지 못하다가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 활동이 본격화된다. 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 백기완 후보를 내세운 진보진영은 대선 후 각각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해 88년 총선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석도 얻지 못한다. 이 두당은 90년 민중당을 창당해 91년 첫 지방선거를 치루지만 민중당은 이 선거에서 1명의 당선자를 얻는데 그쳐 이후 해체됐다.

민주정당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7년 창당한 국민승리 21이었다. 국민승리 21은 그해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워 29만여표(1.3%)를 얻었다. 국민승리21은 2000년에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16대 총선에 출마해 모두 21곳에 후보를 냈지만 아깝게 한 석도 얻지는 못했다. 16대 대선에서는 권영길후보를 내세워 3.9%(96만표)를 얻어 국민의 뇌리에 민주노동당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반세기에 가까운 진보정당의 역사는 17대 총선에서 원내 제 3당 10석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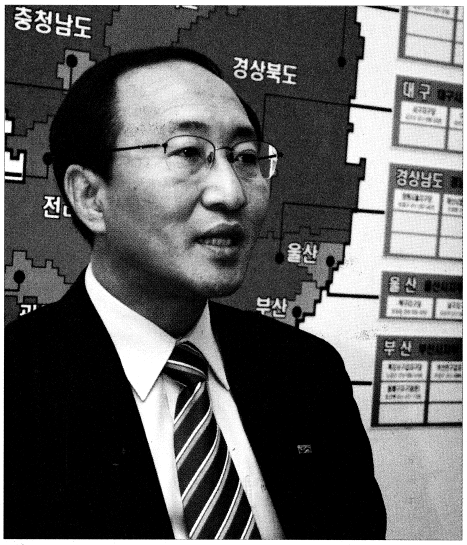




인터뷰 - 민주노동당 노회찬 당선자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디뎠을 뿐"

교육과 의료 무상화, 민주노동당이 해결할 과제



대학신문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노회찬 당선자

1.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보류나 연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철회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민노당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존재와 이라크가 테러지원 국가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해도 가담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전쟁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미동맹 즉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미동맹 자체가 남북의 전쟁과 대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낡은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이 낡은 한미 동맹은 대표적인 불평등 종속적인 관계로써 이라크 파병과 별도로 잘못된 한미동맹은 개혁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추가 파병 반대뿐 아니라 이미 파병돼 있는 부대까지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민노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만약 폐지를 한다면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 즉, 수배자들의 수배해제와 수감자들의 석방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완전폐지 돼야 한다. 국보법은 반인권적 법률이고 전 세계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며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사회협력이 가속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가 있고,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서 간첩죄도 있는데 이는 형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이것으로써 능히 국가보안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법이 철폐돼 수감자가 처벌받을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바로 석방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수배자 같은 경우도 약간의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법의 절차가 실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리라고 생각된다.

3. 청년실업문제는 대학 사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위기의식 해결하기 위한 민노당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정부는 고용의무제 의무할당제 등의 인턴제 실시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제도이다. 민노당은 우선 1년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그리고 1년간을 취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생각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내수기반은 총증상태다. 지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조자체를 바꿔야 한다.

4. 교육개방으로 인해 대학들이 자신을 노리기 위해 등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재테크까지 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통합이 가능한가.

민주노동당의 서울대폐지 주장의 근본적인 의미는 대학의 서열화 폐지다.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이는 사교육 과열화 현상을 야기 시켰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 현상이 생기고 공교육이 망가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중에 하나가 모든 대학을 서울대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중 하나가 국공립대학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통합은 물론이고 사립학교도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은 이중적인 범죄다. 사립학교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외국자본의 사립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이 교육개방이다. 존홉킨스 의과대학이 인천지역에 경제 특구에 들어온다고 한다. 공식적인 교육비만 1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 1억이라는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일 돈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 의료의 무상화이다.

5. 민주노동당 대부분의 정책들이 재원확보를 부유세로 이야기하고 있다. 부유세를 거두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한 외국의 예를 보면 부유세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자들의 이민이 증가하는데 교육과 취업문제로도 이민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민을 더 부추기지 않겠는가.

어제 조선일보사에서 국민의 60%가 부유세를 지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즉 부유세는 사회적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율은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미미하다. 기준시가 10억, 아파트 30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32억이면 2%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준이 7억이다. 대한민국만큼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곳이 없다. 이민가면 그 나라에서 세금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민 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6. 이제 민노당이 떳떳한 제 3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노당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크다. 민노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어떠한가.

기대가 큰 만큼 어깨도 무겁다. 무엇보다 지난 50년간의 국회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노당의 국회 입성으로 권력 독점체제는 이제 끝났다.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국회에 파견한 내부감시자로서 국회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적절하기 위해 싸우도록 하겠다. 국민들 스스로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

대학신문공동취재단

기고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현준 연구원

10석의 한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야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의 의의

4·15총선 결과로 수구반동집단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원내 주도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기성국회의원의 대부분이 개혁성향의 새 인물로 교체되었다. 나아가 진보정당의 원내교두보 구축과 제3당 진입으로 한국사회의 격변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4·15총선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진보세력이 기층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국민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 개별적으로 원내에 진출한 진보 성향의 인물들은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존 정치질서와 정치관행에 동화되어 변질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민중을 앞세운 진보정당의 조직적 진출이라는 점에서 성격과 전망이 전혀 다르다. 이는 민중정치세력화의 새장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민중이 주인되는 한국사회변혁 프로그램은 4·15총선을 기점으로 역량강화와 세력확대 위주의 준비단계에서 본격적인 집권투쟁 단계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한계

2012년 민주노동당의 집권이 이루어질 것인가? 4·15 총선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그 답은 아직 부정적이다. 아직도 한나라당이 의회내에 121석을 차지하고 있고 외세와 자본에 타협적인 여당의 기회상은 한국사회의 기층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세력의 정치적 자배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낸다.

결국 현 국회가 민중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할 여지가 너무 좁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과 활동에서 소외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개혁적 열망에 힘입어 민주노동당과 대화도 하고 개혁적 정책을 입안하여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해도 결정적 순간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이해와 대치되는 진보개혁적 법과 제도의 수립을 왜곡하고 가로막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제진보개혁세력과 연대연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10명의 의원으로는 국회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안 발의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때는 타당 의원들 중 법안에 동의하는 개혁적 의원들과도 함께 하는 방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실력으로 하지 못하는 법안 상정은 결국 타협적 성격을 가지기 쉬울 수 있다.

10석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촛불로 진보개혁국회를 만들어준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유일한 세력이 민주노동당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연대연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외에서 국민적 여론을 조직하여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혁적 의원들을 견인하고 수구보수적 의원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을 조직해내는 것에 민주노동당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전국적 대중조직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 제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대중집회와 투쟁 등 대중운동을 민주노동당과 의원들이 앞장 서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민주노동당이 누구의 당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의원들은 원내에서의 법제도 개선활동과 함께 진보개혁적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른 당이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는 투쟁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라크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과 '전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각종노동악법 등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나아가서 민중연대 등 연대연합의 상설적 기구를 강화하고 요구되는 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짊어짐으로써 10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공 고

2004학년도 서울캠퍼스 하계 계절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등록, 수강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개설예정 교과목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게시판 참조
2.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기간과 수강신청기간이 다름 ☞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① 등록기간	▶2004. 5. 24(월) ~ 5.27(목) *** 3일간(공휴일 제외)
② 납입고지서 발급	▶(서울)학사지원과 / (용인)교무과
③ 등록금 납부장소	▶제일은행 외대지점 서울*용인
④ 수강신청 기간	▶2004. 6. 3(목) ~ 6. 3(목) *** 3일간
⑤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on-line 수강신청(학교 홈페이지 → hufs.ac.kr)
⑥ 수강신청 시간	▶09:00 ~ 17:00

3. 수강료 : 1학점당 70,000
(수강료 산정 예 : 1학점 70,000원 / 2학점 140,000 / 3학점 210,000원 / 4학점 280,000원 / 5학점 350,000원 / 6학점 420,000원)
4. 수강인원이 30명 이상 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함
5. 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료 환불기간 : 2004. 6. 7(월) ~ 6. 9(수)
- 환불시 납입영수증 및 학생증 지참
6. 휴학생(복학예정자 포함),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금번 정규학기까지 총 13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7. 당해 방학기간에 본교 계절학기 수강 및 국내외 타교수학, 기타 인정학점 제도를 포함하여 총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8.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 확정 발표 : 2004. 6. 14(월)
9. 수업기간 : 2004. 6. 21(월) ~ 7. 8(목) *** 16일간(토요일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 ☞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961-4024 / 4361)
용인캠퍼스 교무과 (031-330-4024 / 4026)로 문의 바람

2004. 5.

교 무 처

2004학년도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하나, 우리 대학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역사 · 번역사의 산실이며, 국제회의에서 활약할 전문 통역사와 국제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번역사를 양성하는 국제수준의 통역번역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둘, 우리 대학원은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통역번역 교육기관으로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국내 최초로 유일의 통역학, 번역학전공 박사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전공 및 인원 : 통역학, 번역학, 통역번역학 전공 10명 이내
(연구언어영역 : 한영, 한불, 한독, 한노, 한서, 한중, 한일, 한아)
2. 지원자격
- 국내의 대학원에서 통역/번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어학관련 석사학위위취득자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전문 통역/번역 경력자(석류입증)
3. 원서교부 및 접수 : 2004. 5. 24(월) ~ 5. 28(금)
4. 제출서류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5. 전형방법
- 필답시험 : 가. B언어(연구언어) 및 한국어 논술.
나. 제2외국어 독해력시험(연구언어가 영어가 아닌 자는 필히 영어선택)
다. B언어(연구언어) 구술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
6. 전형일시
- 필답시험 : 2004. 6. 12(토) 10:00 ~ 13:00
- 구술 및 면접시험 : 2004. 6. 12(토) 14:00
- 발표 : 2004. 6. 22(화) 14:00
7. 문의처 : 통역번역대학원 교학부(☎ 961-4112 / 3)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외대역앞 하차
http://gsit.hufs.ac.kr

2004. 5.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Frontier Program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캠퍼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취업 마인드 고취와 취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Hufs-Frontier Program을 기획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1. 행 사 명 : Hufs-Frontier Program
2. 행사기간 : 2004. 7. 12(월) ~ 7. 16(금) 예정
※행사일정이나 세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①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서
가. 학점 3.0이상,
나. 다음 중 한가지의 공인어학자격을 갖춘 자
(TOEIC 800점, HSK 8급, JLPT 1급, JPT 900점 이상)
②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 2004. 5. 19(수) ~ 5. 28(금)
5. 참가신청 : 첨부 파일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서울캠퍼스 취업지원센터로 제출
6. 참가자 선발 방법 : 2004. 6. 3(목) ~ 6. 4(금) 09:30 ~ 16:30 이틀 동안 지원자 본 인이 편한 시간에 교수회관 내 기업체 학생 채용상담실로 방문, 소정의 인터뷰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2004. 6. 11(금)까지 개별 통지함(이메일 또는 전화)
7. 프로그램 내용 : 하루 3교시(6시간), 5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채용연구, 채용 프로세스의 이해 및 정보 취득요령, 취업 스터디 그룹 형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대처 방법, 졸업선배 초청특강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으로 진행 예정
8. 참가자 특전 : 참가자 전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컬러 책자(외대 인재 Bank)로 제작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에 홍보 책자로 발송 예정

2004. 5.

서울캠퍼스 취업지원센터

2004학년도
취업특강 일정 안내

2004학년도 상반기 취업특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제 목 : 면접 유형별 준비 및 대책
강 사 : 장 재 성 (주)대학과 미래 대표이사
일시/장소 : 2004. 5. 31(월) 15:00 / 후복관 소극장

▶ 제 목 :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 사 : 남 경 현 (주)엘리트코리아 대표이사
일시/장소 : 2004. 6. 1(화) 15:00 / 후복관 소극장

▶ 제 목 : 외국계 기업 취업전략
강 사 : 정 유 민 (주)잡코리아 총괄이사
일시/장소 : 2004. 6. 2(수) 15:00 / 후복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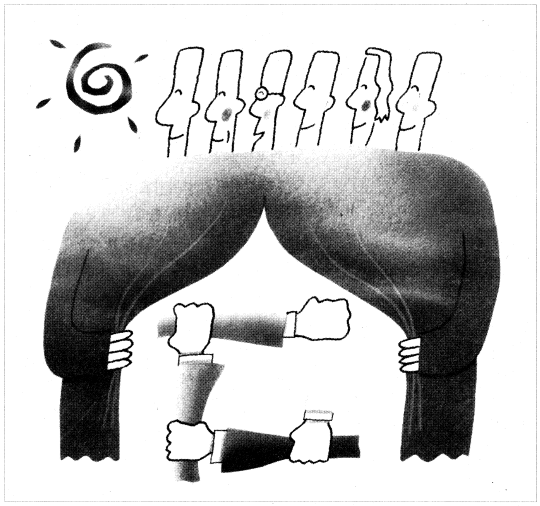
2004. 5.

용인캠퍼스 취업정보센터

학내 사회과학동아리 현실 진단

사회에 대한 관심부족… 무너지는 동아리

사회 속 나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해



사회과학, 인간사회 연구하는 학문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회과학의 사전적 정의다. 위의 정의에 따른다면 사회과학 동아리는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함께 모여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사회과학 동아리들의 사정을 보자면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있으되 모여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갈수록 사람에 허덕이는 사회과학동아리

서울배움터 인권 동아리 휴머니즘의 회원 전경원(서양·이탈리아 03)양의 "올해 새내기들이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은 사회과학 동아리에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어느 사회과학 동아리나 마찬가지 사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대해서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용인배움터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회장 김지연(경상·경제 00)양은 "올해는 다행히도 새내기가 여럿 들어왔지만 작년에는 새내기가 없이 혼자서 학술지를 발행하기도 했다"며 그 사정을 전했다.

사회과학 동아리에 사람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모 대학신문의 편집장은 칼럼을 통해 '80년대 군부독재 시대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사회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이미 무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말 과연 그러할까? 한국사회연구회 회장 김지연(경상·경제 00)양은 위의 주장에 대해 "사회는 물론 급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녀는 "이승만 정부 타도를 외치던 4·19혁명 당시 학생들이 외쳤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슬로건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외쳐야 할 슬로건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70년대 전태일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있다"며 시대의 상황은 겉모습만 유연해졌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말로 그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 동아리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학교 이장희 교수(법대)는 사회과학 동아리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이 교수는 사회과학 동아리의 현실의 원인을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보다는 눈앞에 부딪히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성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상 시민사회의 역할이 성장하면서 학생들의 역할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너무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휴머니즘 회원 전경원(서양·이탈리아 03)양은 이 교수가 들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물론 취업이라는 것도 큰 이유겠지만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며 공연 분과의 경우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데 유독 사회과학 동아리에만 사람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르포동아리 흰두루 회장 김홍익(정보산업공과대·정보통신공학 03)군 역시 "취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독 사회과학 동아리들에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닌것 같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용인배움터 사회과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회원들이 토론하는 모습. 김지연(경상·경제 00) 회장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흔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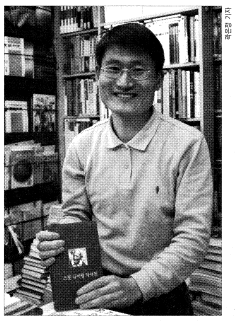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사회과학 동아리 회원들이 '사회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회연구회 박성욱(아시아·아프리카·인도 04)군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 또한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런 활동의 예유는 비단 박 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휴머니즘 회원 전경원(서양·이탈리아 03)양은 활동의 이유에 대해 사회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면서도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군집 생활하는 동물'이 아닌 사회적 동물인 것은 공동선의 추구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존재한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기고 - 사회과학서점 풀무질 일꾼 은종복(우리학교 중국어과 84 졸)

진보의 삶을 살자 청년들아



나는 대학을 1984년에 들어갔다. 지금이 2004년이니 20년 전 일이다.

지금의 학생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최루가스와 더불어 살았다. 대학 입학식 날부터 대학 졸업식 날 까지 매캐한 최루연기가 하늘과 교정을 뒤덮었다.

1980년대는, 5월 18일 광주에서 수백 명의 인민을 죽이고 수천 명을 군홧발로 짓밟아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미국의 돈에 눈먼 사람들이 음흉한 웃음을 머금으며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했다. 그 당시 청년 학생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군사 학살 정권과 미국의 패권 정책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 싸웠다.

1991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동유럽이 쓰러지면서 대학의 진보 모임도 시들기 시작했다. 물론 소련과 동유럽을 사회주의 국가로 보지 않고 또 다른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보면서, 그들의 몰락은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진보의 생각도 있다. 아무튼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회를 만들려 했던 여러 나라들이 몰락의 길을 걷자 한반도 남녘의 진보 운동은 휘청거리게 되고 수많은 진보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괴멸한 삶을 선택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존재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 세력들이 진보의 장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새로운 세력이 힘을 갖기 시작했다. 바로 노동자다. 돈에 눈먼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국가 폭력이 그들을 지켜주고 미국의 패권적 신자유주의의 억압이 커질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건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런 모순을 깨부수려는 노동자들이 뭉쳐 수많은 민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럼 2000년대를 사는 대학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잘못 된 세상은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앞서서 고쳐줄 테니 뒷짐만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가 죽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를 바꾸는 일에 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대학 사회는 진보의 삶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행복은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물을 사 먹는다. 이러다가 공기도 사 먹게 될 지 모른다. 개인의 편리함을 찾다가 지구 전체가 파괴되고 사람 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 모두를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바로 미국식 소비문화다. 이것이 학생을 죽이고 농민을 죽이고 도시 빈민, 노동자를 죽인다. 어디 그뿐이냐 온갖 꽃들과 새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는 싸워야 할 군부 독재와 미제국주의가 분명히 있어서 진보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삶의 곳곳에 스며든 미국식 소비문화가 더욱 우리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편리함을 가장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자본가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 약한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한다. 미국은 동북아 의 패권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 북녘을 침략하려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동차, 손 전화기, 컴퓨터를 먹고 살 수는 없다. 오로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그 땅이 썩고 있다. 지금 미국식 소비 문화가 온 세상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청년들아 일어나라. 세상을 살려야 한다.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는 돈에 눈먼 삶을 거부해야 한다. 진보의 삶을 살자, 청년들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광고

기사가 짤린다...?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만다는 '대학신문'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언론탄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ㅈ 대학 사례
학생기자들이 제안한 많은 기획이 주간교수의 개인적인 성향에 맞물려 삭제 및 변경 추가되기가 다반사. '학교 예산으로 교수에게 지급된 노트북이 경매사이트에 나온 이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친일잔재' 등과 관련해 기자들이 기획을 제안했을 때 교수님은 문제된 노트북을 배정받았던 교수의 신상도 보호해야한다 '그럼 일제 때 생산된 쌀을 먹었던 사람들도 모두 친일파냐?'라는 식의 논리로 기획을 삭제.
학생회선거관련기획 총장선거관련기획 탄핵관련기획 수의대교수임용문제관련기획 등 수많은 기획들이 사전에 검열되어 금지되거나,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가 주간교수의 일방적 결정으로 수정되는 일이 반복
민주적 토론과 논의가 아닌, 주간교수가 폭언을 반복하며 강압적으로 보도를 통제
지난 5월 7일에는 총장선거관련 기획논의 중 편집장에게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대학부장에게도 '너도 나가라' 소리치며 해임시켰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학우들의 알권리와 기자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신문의 사전검열과 통제 학교측의 비민주적인 운영방침에 반대합니다

외대학보 851호 비평

균형보도 부족하다



박지현
영어대 학생회장
(영어·영어 00)

이번 호에서는 한참 학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던 비정규직 철회를 위한 외대 노조의 철야농성에 관해 자세히 다루어 주어 굉소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나 입금의 차이 비정규직들이 속한 용역업체와 우리 학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의미 깊었다. 하지만 이 사안을 기사화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짚어 보려한다.

먼저 노조의 입장과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것에 반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학교 측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851호를 통틀어 열줄 남짓한 기사가 전부이다. 어떤 사안이든지 언론에서는 쌍방의 입장이나 의견 차이 등을 함께 전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 형태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등록금 문제에 있어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을 함께 다루어 학내 구성원들의 쌍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 협약 건에 관해서도 노조 측의 입장이나 계획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의 그것도 함께 다루어 이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학내의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최근 몇 년 째 메이데이의 투쟁목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철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등을 함께 다루었으면 더 의미 깊은 주제기획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2면의 로스쿨 관련 기사에 관해서도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단순히 법대 정원이 50명 늘 듯하다는 것 밖에 전해지지 않는데, 사실 로스쿨 문제는 법대만의 사안이 아니라 외대 전체의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로스쿨이란 정확하게 어떤 학사체계를 말 하는 것인지, 로스쿨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학보가 2주에 한번 발간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주 동안 일어나는 학내·외 사안들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것을 8면에 담아내려다 보니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기자들에게 기사를 좀 더 심도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풍부하게, 기사를 써달라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외대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외대학보〉이니 만큼 좀 더 외대인의 다양한 요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



세면대에 왠 오물?

위 사진은 축제가 한창이던 19일(수) 학생회관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에 버려진 먹을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이다.

김응훈 기자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저정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농활은 향기를 남기고…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외대 학우들이 3박4일 동안 농활을 무사히 수행하고 돌아왔다. 2000년에 있었던 농활에 비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정식명칭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이었던 것이, 현재는 '농촌활동'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농활이 좀 더 큰 틀 안에서, 많은 의미를 담아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한 것이라 보인다. 초기의 농활은 농민을 계몽하고 농촌을 혁신시키기 위한 정치적 연대, 정치적 각성의 자리였고 작금의 농활은 농민, 농촌현실을 깨닫고 도시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돌아오는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농활은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띈다. 기조를 명확히 세우기 위한 교양보다는 실무중심으로 교양이 진행되는 것, 몇몇 농대원들의 경험에 의지한 안일한 준비과정, 농민공동체와 연대하기보다는 학생공동체만을 강조하는 등 실제 수행과정에서 기조와 원칙이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활은 바뀌어야 한다. 정확히 말해 학생들의 농활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농활수행이 아닌 과의 특성,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세미나, 농민분들과의 대화, 분반활동 등 각자의 색깔이 묻어 나오게 준비해보자. 준비에 부족함이 있어도 농활의 보편적인 가치는 변치 않을 것이다. 땀을 통해 배우는 노동의 소중함, 농대원들과 며칠밤낮을 부대끼며 자연스레 형성되는 공동체문화, 농민 분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듣는 살아있는 그네들의 삶. 이것들만으로도 대학생으로서 농활은 한 번쯤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경험자는 일단 참여하고, 유경험자는 기존의 농활을 혁신시켜 '좋았어요'라는 감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자. 여름농활 이제 1달여 남았다. 향긋한 그 곳으로 달려가자.

이범한
(상경·경제 00)

졸업을 앞두고

산록의 계절 5월이 선사하는 그 푸르름 속에서 감산이 적어도 반은 변했을 시간동안 함께한 캠퍼스를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4학년 선배들의 "졸업하려니 아쉽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이해할 수도 동감할 수도 없었던 말인데 말이다.

일전에 입사를 위한 면접에서 "대학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아쉽게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서슴지 않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학년 때는 입시에서 벗어난 기쁨에 학교에 머무르기 보다 밖으로 맴돌았고 2학년 때는 여느 대학생들이 그러하듯 휴학만을 간절히 바랬으며 3학년 때는 복학해서 적응하느라 허둥지둥, 4학년인 지금 진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걱정과 준비로 괴할 수 없는 바쁨(?)병에 늘 그렇게 학교는 내게 버려져 있었다.

어차피 다닐 학교였다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되새길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둘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다시 대학생활을 한다면 1학년 때는 선배들한테 밥 사달라고 조르고 마음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 친목도 다지며 2학년 때는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친구들과 공부도 해보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내고 싶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남은 학기동안 여전히 열의 가득차신 교수님들 덕택에 과제는 쏟아지고 학점을 위해 교준분투해야겠지만 내 눈과 머리 속에 아름다운 캠퍼스를 사진 찍고 남겨두어야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도원희
(서유럽·영어 00)

비양심적인 행위 자제를

용인배움터는 중간고사 기간이 지난지 2주쯤 지났다. 자리가 없어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하던 그때와는 대조적으로 지금의 도서관은 매우 한산하기만 하다.

이 때를 노리고 일부 비양심적인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여러 도난·분실사고가 발생한다. 열람실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는 분실물을 찾고있으니 제보해달라거나 돌려달라는 공고문을 심심찮게 본다. 가방을 일일이 메고다니며 청강하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소수의 학생들은 저마다 가방을 열람석에 두고 나간다.

생각있는 학생들은 중요 소지품은 자기가 손수 지난해 자리를 비우지만 일부 방심한 이들은 미처 그러지못해 분실사고를 자처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감히 몰지각하고 무분별했다고 타박하지는 못할 노릇이다. 그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일을 벌인 보이지않는 비양심의 손길에 치이는 그들의 무정한 현실이 방치되고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며칠전 내 친구도 자신의 과실이었지만 값비싼 mp3플레이어를 도난당했다고 한다. 겨우 수업 두시간 듣고 올텐데 감히 일어날까 하는 방심과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학교 도서관도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처하는 공공 이용시설이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내집같이 소지품을 두고올만큼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도서관내 잘 보이지않는 구석진 자리 주변에만이라도 무인카메라 한두개쯤은 설치해두는 것도 괜찮을지 싶다.

진리·평화·창조라는 3가지 교육이념을 포방하는 자랑스런 외대인으로서의 면모로서 비양심적인 언사와 행동을 되도록 자제해주었으면 바란다. 감시하고 감시받는 여건 조성의 불가피성에 적잖은 슬픔이 밀려온다.

최호열
(전보산업공·컴퓨터공학 98)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김찬완
(인도어과 강사)

2004년 인도 총선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DA) 집권 여당연합이 완패를 하였다. 야당연합이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세계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정치변화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집권여당은 파키스탄과의 화해협력, 8%대의 높은 경제성장 등 일련의 성과에 고무되어 재집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킬 것"이라면서 'India shining' 선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인도국민회의당(INC(I))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은 'India shining'은 오직 일부 도시 중·상층 이상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농민과 서민에게는 무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NDA 집권기간동안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청년실업문제 또한 최고에 달했음을 역설하였다. 이 결과 INC(I) 주도 야당연합이 농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총선 이후 총재인 소니아 간디가 총리로 지명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총리직을 고사하고 전 재무부 장관 만모한 싱을 차기 총리로 임명하였다.

소니아 간디가 총리직을 고사하고 만모한 싱을 총리로 지명했지만 벌써부터 소니아 간디가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렴청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INC(I)를 총선에서 승리로 이끈 후 소니아 간디의 정치적 입지가 당내에서 확고하게 구축되었고, 그동안 이탈리아 태생이란 비판 때문에 전국적인 지도자로 자리잡는데 한계성이 있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한계성이 극복되어 결국 소니아 간디가 차기 정부의 실권자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니아 간디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렴청정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없는 만모한 싱이 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연정에 참여한 지역군소정당들을 한데 아우르고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을 달래는 역할에 더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만모한 싱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공산당이 연정에 참여할 것을 우려해 최근 4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인도증권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는 싱총리가 이끄는 차기 정부가 기존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우려했던 만큼 급선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되는 안도감의 표출이다. 싱 총리는 기본적으로 친시장경제주의자이고 공산당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서벵갈주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경제개혁의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또한 파키스탄과의 화해 협력 등 기존의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인도의 영향력은 최근 골드만 삭스가 'BRICs'라는 보고서에서 예견한 것처럼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도의 관계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 인도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모현학사생 모집 · 하계방학중 개방안내

기숙사 소식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2004학년도 제2학기 모현학사(기숙사)의 남·여 학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모현학사 학사운영과 및 안내실(기숙사 내)
■ 우편접수 주소 :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모현학사 학사운영과
2. 접수기간 : 2004. 5. 24(월) ~ 6. 18(금) 09:30~17:30
3. 제출서류
1) 입사원서 1부 (소정양식) "기숙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증명사진 3매
4. 선발인원 : 732명

하계방학중 모현학사(기숙사) 개방안내

2004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중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현학사(기숙사)를 개방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방기간 : 2004. 6. 28(월) ~ 8. 20(금) -8주-
2. 모집인원 : 120명(남학생 60명, 여학생 60명) -선착순 모집-
3. 금 액 : 입사관리비 160,000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 입사원서 접수시 학사운영과에 현금 납부 합니다. (중간 퇴사시 환불되지 않음)
4. 신청자격 : 외대 재학생
5. 접수기간 : 2004. 5. 24(월) ~ 6. 18(금) 09:30 ~ 17:30
6. 접 수 처 : 모현학사 학사운영과
7. 제출서류 : 입사원서 1부(소정양식), 재학증명서1부, 사진 3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과 (☎031-330-4103)로 문의 바랍니다.

2004. 5.

모 현 학 사

변경된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자 안내

2004년 제1학기 학생예비군 기본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니 해당 예비군은 참가바랍니다.

- 다 음 -

1. 훈련대상자 명단 : 학교홈페이지(첨부 파일 참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게시판 게재
2. 교육훈련 제외자
가. 2004년 전역 예비군
나. 2004년도 주민등록지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필 한 자.
다. 재·보궐선거 전국115개 지역 유권자(학생)
(1)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유권자(학생)는 예비군훈련 참가를 불가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월 11일자 학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된 훈련대상자를 부득이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학생이 예비군훈련장에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귀가 조치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니 반드시 훈련대상자만 참석하기 바라며,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학생은 추후 공고된 훈련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 훈련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은 재·보궐선거 전국115개 지역 유권자에 해당됨.
3. 훈련 일자

구분	일자	시간	훈련 대상	훈련장소
기본훈련	5. 31(월)	08:00 ~ 17:00	영어대학, 서반어대학 동양어대학(중국어, 아랍어, 태국어)	글곡훈련장
	6. 1(화)		동양어대학(일본어, 마인어, 베트남어, 터키어, 인도어, 이란어)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동대문구 예비군훈련장
	6. 2(수)		상경대학, 대학원 전체	
소집영점 검	5. 31(월) ~ 6. 2(수)	09:00 17:00	7~8년차 전원	한국외대 비상체육관실

4. 유의사항
가. 수송버스 이용 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하여 승차 바람.
나. 개별 입소시 07:50까지 글곡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할 것.
다. 자가 차량 주차공간 없음(협의 주차시 위반차량 처벌 및 견인)
라. 대중교통 안내 : 청량리→글곡 165-1(앞번), 청호동→글곡 1-3(하차, 앞번),
강변역→글곡 9-1(하차)
마.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역증 중 차나뭐하 휴대할 것.
※신분증이 없는 학생예비군은 교육일 전에 신분 확인증을 비상계획관실에서 발급 받기 바람.
바. 교육일정은 질의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사. 지연 도착자와 복장 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복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불일치자)는 귀가조치 및 불참처리 됨.
※ 기타 문의 사항은 비상계획관실(구 본관 1층) 또는 전화 961-4145, 4146으로 문의바랍니다.

2004. 5.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200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주간)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전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전원 장학금 (하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T.A 및 R.A 기회 부여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 단체 연수 실시(교비부담)
■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유학 장학금 지급
■ 해외 단기 인턴십 제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전원 기숙사(삼정서련) 생활

1. 모집분야

구 분	모집학과	
석사과정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국제경영	• 지도자

2. 전형방법
• 논술, 영어(TOEFL, TOEIC 또는 TEPS 최근 2년내 취득 성적 제출) 및 면접

3.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5월 17일(월) ~ 5월 28일(금)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기간 : 2004년 6월 2일(수) ~ 6월 9일(수)

화합하고 협동하면 불가능은 없다
경희대학교
www.khu.ac.kr

문의처 ☎ 031-570-7014~6 • http://gip.khu.ac.kr

흡산의 소리 · 교수님들의 한마디 · 명수당에서 힘껏 써보시오

붓, 휘둘려 보셨소

곳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전자우편 - oedaepress@hanmail.net
연락처 - 02-961-4152
031-330-4112

기고 - 교수 산악회 이정희교수(정치외교) 안나푸르나 등반기

안나푸르나를 넘어 세계로

안나푸르나 해외등반을 위해 인천공항에 모인 우리학교 교수산악회 회원 10명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안나푸르나 등반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져 이곳 저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좀 쑥스럽다는 분위기였으나,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등반인 만큼 무사히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Annapurna Base Camp: ABC)까지 등반을 마치고 돌아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방콕에서 1박하고 4월 24일 오전 네팔의 카투만두로 향했다.

네팔을 찾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로 비행기 안은 인종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두시간 여 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카투만두는 건기의 마지막에 접어들어서인지 황토색 분위기의 메마른 도시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한 후 20인 승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네팔 제 2의 도시인 포카라(Pokhara)로 향했다. 산등성이의 집들, 촘촘한 계단밭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포카라에서 등반기점인 나야폴(Naya Pul)까지는 버스로 약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며 중간에 등반 허가서를 받느라 약간 지체했다. 거리의 건물, 상점, 간판, 그리고 네팔인의 모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직감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나야폴에서 우리 등반대를 도와줄 현지인들과 합류하였다. 우리학교 등반팀을 포함한 등반인 19명 한국 안내인 2명 현지인 26명으로 모두 47명의 대규모 집단이 꾸려진 셈이다. 오후 5시30분 나야폴을 출발해 완만한 돌밭길을 걸어 가던중 갑자기 마차푸차레(Machhapuchre)봉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사진으로만 보던 신비스런 마차푸차레 봉이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날이 어두워져 랜턴으로 길을 밝히고 2시간여 걸은 후 첫 숙박지인 시울레 바잘(Syauli Bazar)에 도착하였다.

4월 25일(일)

상쾌한 아침이다. 6시 기상, 7시 아침식사, 8시 출발의 스케줄은 어김없이 이행되었다. 미역국에 김치 심지어 고들빼기까지 준비된 화려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누룽지와 숭늉까지 마신 후 서서히 트레킹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1170미터에서 출발하여 1340미터 높이인 뉴브리지(New Bridge)까지 오르고 오후 일정은 2170미터인 촘롱(Chomrong)에 도착하는 것이다. 전이튿의 고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풍광을 감상하며 서서히 걸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산길을 따라 옥수수 계단밭이 계속되었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은 우리 일행에게 다가와 수줍게 어떤 경우는 당당하게 사탕이나 볼펜을 청했다. 중간, 중간에 휴게실을 겸한 식당에 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디서나 배낭을 풀어놓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약 7시간의 오르고 내리는 트레킹 끝에 도착한 촘롱 랄파나 게스트하우스는 안나푸르나 남봉(7219m), 히운출리봉(6441m), 마차푸차레(6993m)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환상의 숙소였다. 저녁식사 후 그곳 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문화행사를 준비해주어 함께 민속춤과 노래를 즐겼고, 우리 일행은 지역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금일봉을 기부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 촘롱의 밤은 곧 조용해졌다.

4월 26일(월)

트레킹에 익숙해져가는 탓인지 대원 모두 한층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등반대장인 박동률 교수는 아침부터 환홀한 경관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전 트레킹은 눈앞에 보이는 시누아 롯지여서 안심했으나, 2천여 돌계단을 내려가 바닥을 치고 다시 그 높이를 오르는 깊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포터 신세를 지지 않고 70리터 배낭을 짊어진 채 산을 오르는 유럽 청년들도 종종 눈에 띠었다. 촘롱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를 뒤로하고 시누아를 거쳐 주계곡으로 들어서자 소규모 정글과 같은 숲이 나타났고, 우기가 시작되는 조짐인지 거머리가 출몰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네팔 국화인 붉은 빛의 라니글라스라는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름 모를 들꽃의 미소와 새소리에 피로를 잊고 도반(Doban:2505미터)에 도착했다. 뜨거운 물 한통이를 50루피(850원)에 주문하여 흘린 땀을 씻어낸 후 마신 시원한 맥주의 맛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마차푸차레는 우리의 트레킹을 안내하듯 근엄하게 서 있었다.



장재훈 기자

4월 27일(화)

날씨는 쾌청하였으나 아침 기운은 쌀쌀한 편이었다. 약 1200미터의 고도를 높여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MBC: 3700미터)까지 오르는 날이라 약간 긴장되었다. 3000미터를 넘어서니 고소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 간 6-7시간씩 트레킹한 피로가 누적되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두 명의 대원이 몸살기운으로 힘들어했으나 모두 건강한 편이었다. 가이드는 트레킹의 속도를 대폭 낮추어 서행하였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자주 가져 고도 상승에 적응하도록 조치하였다. 히말라야 롯지를 돌아서자 계곡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또 다른 정경이 펼쳐졌다. 멀리 흰 머리 원숭이들이 뛰어 다니고, 계곡의 바위는 각기 기묘한 형태와 색깔로 우리를 맞았다.

4월 28일(수)

새벽에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깼다. 잠을 설친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 듯하다. 고도가 높은 이유에다가, 안나푸르나 주봉을 만난다는 설레임, 그리고 날씨가 좋아야한다는 조바심으로 깊이 잠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려던 계획은 날씨 관계로 30분 늦추어 5시 정각 우리의 최종 목표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향해 떠났다. 랜턴으로 새벽길을 밝히고 30분쯤 오르자 주변의 하얀 산이 뜨는 해에 합입어 서서히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나 구름이 몰려들면 주변은 곧 구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 두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자 안나푸르나 남봉이 정면에 나타났고, 그 우측에 남벽을 내보이며 안나푸르나 주봉(8091미터)이 서있었다. 그냥 그 곳에 있었다. 연봉을 거느리고 있다는 뽐냄도 없이, 구름이 가리웠다 흘쭉 떠나가도 별로 상관없다는 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때묻지 않은 자연에 목마른 사람들은 안나푸르나 연봉들과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정말 순수한 얼굴이었고 깨끗한 마음이었다.

다시 ABC로 돌아온 후 모두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밝은 모습이었다.

카투만두에서는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과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도 둘러보았으나 시간에 쫓겨서인지,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사찰과 유적지, 관광객을 둘러싸고 억지 흥정하는 거리의 아이들로 관광의 기쁨은 반감되었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구마리 접견(?) 역시 인위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에 신비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마침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 이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거리를 지나면서 네팔의 정치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입헌왕정체제하에 황실과 내각, 정당, 군부, 그리고 고립 산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마오이스트들이 앞으로 네팔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안나푸르나는 알고 있을지.

녹색대학 탐방 다녀온 생활도서관 조정훈군 인터뷰

"학생들의 힘으로 학교가 움직여요"

우리나라에 대안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2003년 경남 함양에 세워진 '녹색대학'이 그것이다. 생태주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이 곳은 우리들에게 색다른 곳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배움터 생활도서관의 주최로 지난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우리 학교 20여명의 학생들이 녹색대학 탐방을 다녀왔다.

2박 3일간의 녹색대학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으며 무엇을 얻고 돌아왔는지 이번 탐방의 생활도서관 담당자인 조정훈(동양·중국어 99)군에게 들어봤다.


조정훈 수습기자

어떤 계기로 녹색 대학을 탐방하게 된거죠?

이번 탐방을 통해 중요한 문제임에도 관심 밖의 영역에 머물렀던 생태주의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어요. 또한 우리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생태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학교라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던가요?

자급자족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라고요. 인위적인 것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이죠. 일정 중에 '황토벽 만들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황토와 지푸라기를 적당량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친환경적인데다가 습도조절, 온도조절도 스스로 되죠.

생태뒷간 만들기도 했었는데 배설물들은 모두 모아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 생태뒷간은 사용법이 인상적이더군요. 자신이 볼 일 보고 자신이 직접 치워 일손이 따로 들게 하지 않게 돼 있죠.



학교를 운영하는 체계가 우리 학교와 다르다고 들었어요. 녹색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우리 학교는 교직원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식이죠. 하지만 녹색대학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더군요. 어쩌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결정을 통보받기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느낀 것은 위계질서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교수와 학생의 차이도 없고 선배와 후배의 차이도 두지 않더라구요. 그런 자율적인 모습,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 개인의 자유보장, 공동체가 개개인의 힘을 모아 운영되는 모습이 우리 학교와 차이가 많더군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의 우리 대학 사회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녹색대학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돌째날 있었던 토론 자리에서 녹색대학생들은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세상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녹색대학에서만 생태주의를 내세우고 모두가 함께 하는 학교운영을 외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방법이 있다면 졸업 후 개개인이 시민단체나 환경련가 자문단에서 활약하면서 사회에 합류함으로써 지금은 비주류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녹색대학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런 일을 할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곽은정 기자
ej2045@hanmail.net

